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는 마감토.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 의사를 피력
 - Goldman Sachs, 미국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상향. BofA는 S&P500지수 전망 하향
 - EU, 미국에 관세 협상 제안. 對美 보복 관세 규모도 축소할 전망
 - 일본 총리, 미국과 관세 협상 시작 합의. 2월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감소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및 교역국과의 협상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1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변동성 확대 속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장 초반 낙폭을 축소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로 인한 유럽 경제 피해 우려 등으로 4.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큰 폭의 국채금리 상승 등을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완화된 무역마찰 우려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68.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0.9원, 0.08% 하락). 한국 CDS 강보합

		4/7일	4/4일	전일대비			4/7일	4/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062.3	5,074.1	-0.23%	국채 금리 10y	미국	4.18%	3.99%	+19bp
	유럽	474.01	496.33	-4.50%		독일	2.61%	2.58%	+4bp
	중국	3,096.6	3,342.0	-7.34%		영국	4.62%	4.45%	+17bp
	일본	31,137	33,781	-7.83%	CDS 5y	한국	46bp	46bp	+0bp
	한국	2,328.2	2,465.4	-5.57%		중국	77bp	67bp	+10bp
환율	달러지수	103.26	103.02	+0.23%	위험 지표	EMBI+	-	425	-
	유로화	1.0912	1.0956	-0.40%		VIX	46.98	45.31	+3.69%
	엔화	147.84	146.93	-0.62%		WTI유	60.70	61.99	-2.08%
	위안화	7.3210	7.2818	-0.54%	원자재	구리	418.6	440.2	-4.91%
	원화	1,472.0	1,461.0	-0.75%		금	2,983.3	3,038.2	-1.8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유예는 미검토. 재무장관은 관세 협상 의사를 피력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일시적 중단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 아울러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첨언. 이에 시장에서는 9일부터 상호관세가 정상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중국은 폐쇄된 시장이라고 지적. 또한 일본은 미국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일본이 자국 시장을 좀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관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50개 이상의 국가와 향후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제시. 다만 중국은 보복 조치 등 기존의 부정적 행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
- 이날 일부 언론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은 해당 소식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 다만 이번 루머로 주가는 일시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시현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쿠글러 이사, 현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우선 과제

- 쿠글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경제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크며, 이에 대한 대응이 더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 특히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도 존재한다고 부연

■ Goldman Sachs, 미국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상향. BofA는 S&P500지수 전망 하향

- Goldman Sachs는 12개월 이내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상향 조정(35% → 45%)하고,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 JPMorgan의 다이먼 회장 역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BofA는 S&P500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하향 조정(6666 → 5600)하고, 이는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예상 이익 감소를 반영했다고 부연

■ EU, 미국에 관세 협상 제안. 對美 보복 관세 규모도 축소할 전망

- EU의 세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이며, 자동차 및 기타 산업 제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 방안을 제안했다고 발표. EU 무역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의 협상 개시를 우선 과제로 지목
- 또한 세프초비치 위원은 對美 보복 조치의 규모 역시 앞서 발표된 260억유로 규모에서 축소될 것이며, 일부 주류 및 유제품은 보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 유로존 4월 투자자신회, 미국 관세 영향에 전월비 하락. 2월 독일 산업생산은 감소

- 유로존 Sentix 투자자신회는 전월비 하락(-2.9→-19.5)했고, 이는 미국 관세 관련 우려가 반영된 결과. 한편 2월 독일 산업생산은 전월비 1.3% 감소.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및 국방비 확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은 산업생산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중국 정책 당국, 트럼프 관세 대비하여 경기부양책 촉진 등을 논의

-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요 정책 당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은 수출 보조금 확대, 소비활동 촉진, 증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
- 한편 상무부는 20여개의 주요 미국 기업 대표들을 초대하여 시장 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동시에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비판

■ 일본 총리, 미국과 관세 협상 시작 합의. 2월 실질임금은 2개월 연속 감소

-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양국은 관세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미국에 관세 조치의 재고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 주요 언론은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보도
- 한편 1월 명목임금은 28.9만엔으로 전년동월비 3.1% 증가.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3%를 기록했으며, 이에 실질임금은 1.2% 감소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 3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관세 충격, '08년 및 '20년 사태와 구조적으로 상이. 정치적 해결이 요구 - 블룸버그

(How Does This Crash Compare to 2020 and 2008?)

- 투자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충격과 유사한 사태로 '08년 금융위기와 '20년 팬데믹을 기억. 전자는 주택시장 붕괴 및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후자는 봉쇄 조치가 공급망 훼손의 여파를 확대시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 하지만, 관세 충격은 공급(수입 가격 인상)과 수요(고물가로 인한 소비감소, 심리적 위축) 측면 모두에 타격을 미칠 소지. 아울러 이전 두 차례의 금융시장 혼란은 연준 개입으로 바닥을 확인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연준의 대응에 한계가 존재. 이에 이번 위기 해결은 관세 완화 등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

■ 미국 트럼프 관세, 무역전쟁·연준·공공부채에 재앙적인 삼중고 유도할 소지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May Cause a Disastrous Trifecta)

- 트럼프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심화는 금융시장 혼란과 보복의 반복 등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위험의 증폭을 유발. 아울러 연준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상승 및 생산량 감소 예상(스태그플레이션)으로 통화정책 대응에 난항이 예상.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필요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의 대립 가능성은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
- 아울러 현행법상 예산 적자의 장기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TCJA(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연장 추진 등에 기인한 재정 악화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경제적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 이는 공공부채 신뢰 훼손 및 이에 따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상실로 연결되어 장기금리 상승 유도할 가능성

■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약화될 가능성 - 블룸버그

(Why Buy the Dollar If the US Becomes an Economic Island?)

-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미국이 경제적 고립을 추구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및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전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 70%에서 작년 58%로 하락했고, 금융시스템 발전으로 달러화 환전이 없어도 국가 간 무역이 가능해져 핵심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도 약화
- 한편 달러화는 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는데, 미국이 무역적자를 지속할수록 상대국들의 달러화 보유량이 증가. 이에 트럼프의 무역적자 축소 노력은 글로벌 달러화 공급을 줄여 기축통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 초래할 가능성

- **미국 경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완전한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 - 블룸버그**
(Stagflation is now America's best-case scenario)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 향후 6개월간 물가상승률(연율)이 5%에 달할 수 있고, 기업투자 지연과 가계소비 감소로 수요는 위축될 전망. 또한 이민 감소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 결과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완전한 경기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대폭 증가
 - 이 가운데 연준은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될 가능성이 커져 대응 여지는 매우 제한적.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내 100bp 금리인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재는 '19년처럼 보험성 금리인하 단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미국의 트럼프 관세, 산출 방법 오류 등으로 '상호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 부족 - WSJ**
(Trump Says Tariffs Are Reciprocal. They Aren't.)
- **미국 트럼프의 세계 시장에 대한 마피아 보스식 접근, 복잡한 현실을 간과 - Financial Times**
(Trump and the mob boss approach to global markets)
- **미국 트럼프 시대의 세계무역 회복, 유일한 열쇠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 여부 - WSJ**
(How Global Trade Could Survive Trump's Tariffs)
- **연준의 금리인하, 트럼프 관세 여파 고려 시 큰 실수로 귀결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Fed shouldn't try to save the world from Trump tariffs)
- **미국 증시, 공포지수 급등은 주가의 일시 반등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 - WSJ**
(The Stock Market's Fear Gauges Point to a Bounce, Not a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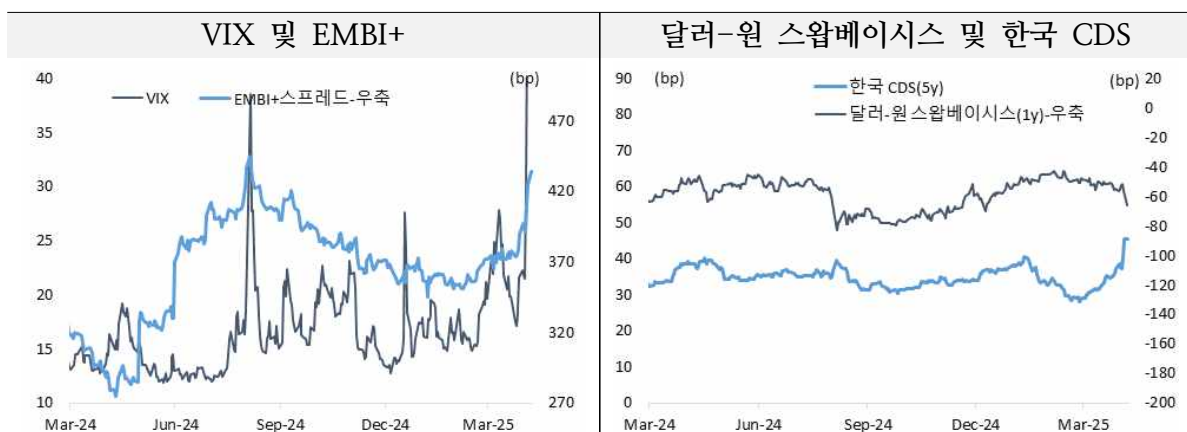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